

<개암십이곡>의 성격과 시가사적 위상

이상원*

<차 례>

1. 머리말
2. 『개호잡록』에 대하여
3. <개암십이곡>의 성격
4. <개암십이곡>의 시가사적 위상 - 결론을 대신하여

1. 머리말

<개암십이곡(開巖十二曲)>은 16세기 말 김우굉(金字宏, 1524~1590)의 작품으로, 조해숙이 처음 발굴·소개한 것이다.¹⁾ 이후 새로운 자료 『개호잡록(開湖雜錄)』의 발굴을 계기로 향촌의 사족 집안을 중심으로 전개된 시조의 창작, 향유 및 전승의 구체적 실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 바 있다.²⁾

* 조선대학교

1) 조해숙, 『義城 金門의 時調 落穂 11首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9집, 서울대 국문과, 1994.

2) 최재남, 『士林의 생활문화로서의 詩歌活動』, 한국고전문학회 편, 『국문학과 문화』, 월인, 2001.

조해숙, 『전승과 향유를 통해 본 <開巖十二曲>의 성격과 의미』, 『국어국문학』 133, 국어국문학회, 2003.

선행 연구에서는 이 작품을 향촌 생활문화의 일부로서 다루거나, 의성 김씨 가문 내에서 향유되다가 기록된 전승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펼친 것이 특징이다. 이들 선행 연구의 성과는 소중한 것이지만, 작품 창작의 동기 및 작품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의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개암십이곡>은 16세기 중반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에 이어 창작된 '육가형 시조'라는 점에서 <도산십이곡> 이후 '육가형 시조'의 향방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창작 동기나 작품 성격에 대해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개호잡록』에 대해서도 약간의 보충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기존 논의에서 정리한 것처럼 김추임(金秋任, 1592~1654)이 편찬한 원본으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호잡록』에는 총 10수의 시조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8수는 <개암십이곡>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2수는 <개암십이곡>과는 무관한 별도의 작품이다.³⁾ '육가형 시조'의 일부로서 <개암십이곡>의 성격을 논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므로 여기서는 <개암십이곡> 8수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2. 『개호잡록』에 대하여

『개호잡록(開湖雜錄)』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필사본⁴⁾으로 <개암십이곡>을 비롯하여 관련 자료들이 수록된 소중한 문헌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문헌에 대해 김우평의 증손자인 김추임(金秋任, 1592~165

3) 조해숙, 위의 논문 참조.

4) 『개호잡록』은 장서각에 소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장서각 소장도서 목록에는 나와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필자는 서울대 조해숙 교수께 부탁하여 이 자료의 사본을 얻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소중한 자료를 복사해 준 조해숙 교수께 감사할 드린다.

4)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김추임이 작성한 원본 그대로가 아니며 후손에 의해 손질이 가해진 것이다.

『개호잡록』은 〈개호잡록 소서(開湖雜錄小序)〉, 〈개호잡록 상(開湖雜錄上)〉, 〈개호잡록 하(開湖雜錄下)〉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호잡록 소서〉에는 이 소책자를 엮게 된 배경이 서술되어 있고, 〈개호잡록 상〉에는 〈개암십이곡〉을 비롯한 김우평의 시조 작품을 수습한 과정을 기록한 서문과 관련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개호잡록 하〉에는 개호 주변의 승경에 대한 기록 및 김추임과 정헌세(鄭憲世, 1597~?)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이 문헌을 김추임이 작성한 것으로 본 것은 〈개호잡록 소서〉의 끝에 있는 “崇禎庚辰八月十三日主人慕亭識”라는 기록 때문이다. ‘慕亭’은 김추임의 호이므로 이 글은 경진년(1640년)에 김추임이 쓴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이 기록 아래에 작은 글씨로 붙어 있는 다음과 같은 주석은 이 문헌이 김추임이 작성한 원본이 아님을 보여준다.

모정은 참봉 할아버지의 자호인데, 후에 외서암으로 호를 고쳤다.⁵⁾

이 기록은 김추임을 ‘參奉先祖’로 부르는 후손의 주석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문헌의 필사자는 김추임이 아니라 그의 후손임을 알 수 있다. 이 문헌의 필사자가 김추임의 후손임을 알려주는 정보는 이밖에도 두어 군데 더 나타나고 있다.

이 이하는 외서암 선조가 기록한 것인데 모두 정자 위에서 본 것이므로 아울러 덧붙인다.⁶⁾

이 아래 네 수는 세마 정공이 지은 것이다. 본질(本秩)에는 성과 자를 직서(直書)하였으나 지금 등초하여 바치는 까닭에 감히 하지 못한다.⁷⁾

5) “慕亭參奉先祖自號, 後改號畏棲菴.” 〈개호잡록 소서〉, 『개호잡록』(장서각 소장). 이하 이 책에서 인용하는 경우 서명과 소장처는 생략하기로 한다.
6) “此以下畏棲菴先祖所錄, 而皆是亭上所見, 故並附焉.” 『개호잡록』 하.

위의 두 기록은 모두 <개호잡록 하>에 있는 것이다. <개호잡록 하>는 개호 주변의 승경을 소개한 내용, 김추임의 <칠곡영(七谷咏)>, 정현세의 한시 4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의 것은 개호 주변의 승경을 소개한 내용을 시작하는 부분에 적힌 것이고, 아래 것은 정현세의 한시 4편을 시작하는 부분에 기록된 것이다. 위의 기록은 김추임이 『개호잡록』과는 별도로 개호 주변의 승경을 정리한 것을 후손이 『개호잡록』에 삽입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기록은 김추임이 작성한 원본에서는 ‘정경식(鄭景式)’과 같이 성과 자를 적서했던 것을 후손이 수정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 세 기록을 통해 김추임이 작성한 원본을 토대로 그의 후손이 일정하게 손질을 가한 것이 현재 전하는 『개호잡록』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전 『개호잡록』의 필사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이것은 김추임이 작성한 원본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낙강의 물이 태백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화산부에 이르러 꺾여 서쪽으로 흐르다 용성현에 이르고 또다시 꺾여 남쪽으로 흘러 양양군 백산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태백에서 발원하여 한 갈래가 서쪽으로 수십 리를 가다가 낙강의 남안에서 그쳐서 창응동⁸⁾이 되니 이른바 개호는 바로 그 가운데를 차지한 것으로 상산의 동쪽이다. …(중략)… 나의 증조 부제학 선생이 비로소 깨끗하게 버려진 경치를 사랑하여 고반(考槃)의 땅으로 삼아 이미 정사(精舍)를 짓고 또 그 중 바위의 형상이 대장부가 크게 입을 벌리고 웃는 듯한 것을 취하여 개암(開巖)이라 자호하였다. 만년에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 쉬면서, 각건(角巾)을 쓰고 소요하며 산에 오르고 물에 임하여 물고기나 새와 더불어 짧은 노가 서로 따름에, 흥을 만나면 말로 뜻을 펴서 길게 노래하여 <개암십이곡(開巖十二曲)>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곧 섬나라 오랑캐의 난이 있어 자손이 강좌(江左)로 유리하여 사십 년이나 돌아오지 못함에 옛 정사는 변하여 거친 풀에 꿩과 토끼가 번갈아 밟은 자취만 있게 되었고, 갈매기와 백로는 강산이 빛을 잃고 풍월만 맑은 것을 서로

7) “此下四首洗馬鄭公所作。本秩直書姓與字，而今謄草伏呈故不敢。” 『개호잡록』 하.

8) 현재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매골.

조상하게 되었다. 나는 난 후에 태어나 왕래하면서 그것을 보고 마음이 비통하였다. 갑술년(1634년)에 비로소 이곳으로 오게 되어 이에 옛 터에 떠집을 짓고자 물새에게 거둬 맹세하여 옛날의 자취를 이루려 하였으나 다만 생각하니 난 후 가업이 가난하게 되어 종들조차 옛날의 종이 아니니 산고수곡(山臯水曲)을 맡은들 누가 선세가 노닌 자취를 이루겠는가? 이른바 <개암십이곡>에 이르러서도 받은 언고 받은 잃었으니 이에 이른 것을 생각함에 일찍이 개연히 길게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중략)… 이에 옛 자취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슬퍼하며 후생의 헤아림이 있기를 바라 **머리에 <개암십이곡>의 반 및 다른 몇 곡을 수록하여 상권으로 삼고, 덧붙여 내가 이미 지은 것 및 봉우 형제가 읊조린 바를 하권으로 삼아 이를 합쳐 『개호잡영(開湖雜詠)』이라 이름 지어 내 뜻을 보인다.9)**

김추임의 글을 모은 『외서암일고』의 맨 앞에 있는 <개호잡영>의 서문이다. 이 글은 개호의 위치와 승경, 김우평이 이곳에 정사를 마련하고 <개암십이곡>을 짓게 된 사정, 예안에서 태어나 자란 김추임이 이곳을 다시 찾아 조상의 뜻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개호잡영』 편찬의 취지 등을 기록한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이 글은 뒤에 이어지는, 개호 주변의 칠곡을 노래한 칠언절구 9수의 서문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마지막의 밑줄 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글은 김추임이 편찬한 『개호잡영』의 서문이었던 것을 『외서암일고』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활

9) “洛江之水，發源于太白山，南流而至花山府，折而西到龍城縣，又折南入于海襄陽郡附山。祖于太白，而一支西行數十里，止于洛江之南岸，爲蒼鷹洞，所謂開湖，正占其中，是商山之東也。…(중략)… 吾曾考副提學先生，始愛其淨澗之景，以爲考槃之地，旣作精舍，又取其中巖狀如大丈夫大開口笑者，自號開巖。晚年棄官歸休，角巾逍遙，登山臨水，與魚鳥短棹相隨，遇興則發於言志永言，有開巖十二曲旣，而先生去世，卽有島夷之亂，子孫流離江左，四十年不歸，昔之精舍，變爲荒草，雉兔交跡，鷗鷺相弔江山失色風月獨清，余亂後生也，往來見之，心焉愴感。甲戌始來此，乃謨茅棟于舊墟，重盟沙鳥，以繼昔日之遺蹟，但念亂後家業零替，蒼頭赤脚非復舊時之使，嗅山臯水曲，誰徵先世之遊迹。至於所謂開巖十二曲，亦且半得半失，言念至此，未嘗不慨然長歎也。…(중략)… 於是，悲古迹之無徵，庶後生之有稽，首錄開巖十二曲之半及他數曲，爲之上卷，附以已作及朋友兄弟之所詠，爲之下卷，總名之曰開湖雜詠，以示余意焉。” <開湖雜詠 九絶 並序>，『畏棲庵逸稿』，『聞韶世稿』四(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호잡영』이라는 명칭이다. 이 글은 『개호잡록』에도 〈개호잡록 소서〉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는데, 둘은 일부 구절의 출입이 있을 뿐 전체 내용은 차이가 없다. 그러면 『개호잡영』과 『개호잡록』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김추임이 편찬한 원본은 『개호잡영』이며, 『개호잡록』은 이를 바탕으로 후손이 손질을 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글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내용과 『개호잡록』을 견주어 보면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 우선 책의 제목이 『개호잡영』에서 『개호잡록』으로 바뀌었다. 다음으로 하권의 내용에서도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위의 글에서는 “내가 이미 지은 것 및 봉우 형제가 읊조린 바를 하권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개호잡록』에 수록된 하권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지은 〈칠곡영〉 외에 정현세의 한시 4편 8수만 실려 있다. 과연 정현세의 시가 서문에서 밝힌 “봉우 형제가 읊조린 바”의 전부라 할 수 있을까? “봉우 형제가 읊조린 바를 하권으로 삼았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김추임이 편찬한 『개호잡영』의 하권에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시가 수록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게다가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호잡록』의 하권 앞부분에 수록된 개호 승경 관련 기록은 『개호잡영』과는 별도로 김추임이 정리해둔 것을 후손이 삽입한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볼 때 『개호잡록』의 하권 부분은 후손에 의해 꽤 많이 손질이 가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하권에 비해 상권은 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개암십이곡〉의 반 및 다른 몇 곡을 수록하여 상권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이는 『개호잡록』의 상권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차이는 있다.

이 곡은 증조인 부제학 선생이 노래한 것이다. 그 곡은 십이 곁이 있었으나 난 후 능히 전하는 자가 없었다. 내가 유전되는 것에서 들은 것은 〈개암(開巖)〉, 〈옥주(玉柱)〉 두 곡뿐이었다. 무인년(1638년)에 남호(南湖) 조 직

장(趙直長) 어른이 이 호수에서 배를 타고 노닐다가 시간이 지나 나의 집에서 목게 되었는데, 내게 묻기를 “자네는 이 십이 곡을 아는가?” 하기에 나는 송구해하며 다만 위의 두 곡으로 대답하였다. (조 직장 어른이) 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젊었을 때는 그것을 다 노래하였으나 지금은 이미 늙은 데다 또한 반은 잃어버렸다네.” 하고 이 육곡 및 <삼오정(三梧亭)> 한 곡을 노래하므로 내가 그것을 삼가 받아서 적었다. 그 후 외제 정헌세(鄭憲世)가 또한 한 곡을 전하였는데, 비록 제목을 명한 곳은 모르겠으나 그 가리키는 뜻을 보건대 필시 십이 중의 하나이기에 아울러 육곡의 아래에 기록하였다. 그런데 <삼정암(三呈巖)> 한 곡은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것인데 가사의 말에 아마도 잘못된 곳이 있는 듯하다. 그 나머지 네 곡은 연유를 알 길이 없기는 하나 결국 능히 전할 수 있는 자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기필할 수 없는 까닭에 그 아래 몇 장을 비워서 후일을 기다리니 혹 소독이 있을지 모르겠다. 남호는 성이 조이고 이름은 평이니 나의 증조 처형제의 아들인데 이 때 나이가 76세였다. 내 증조를 생각하건대 문장과 덕행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으며 또 이 강산을 사랑함이 지극하였으니 이 가곡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유형의 여러 문자 시구가 많을 것이나 전부 잃어버려 전하는 것이 없으니, 오호라 슬프도다!¹⁰⁾

<개호잡록 상>의 첫 부분에 실려 있는 위의 기록은 김추임이 <개암십이곡> 중 여덟 곡을 얻게 된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십이 곡 중 나머지 네 곡은 끝내 얻을 수 없게 되자 그는 밑줄 친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일을 기약하며 몇 장을 비운다고 했다. 하지만 『개호잡록』 그 어디에도 공란으로 남겨진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이 또한 현전 『개호잡록』

10) “此曲，乃曾祖考副提學先生所歌者也。其曲有十二闋，而亂後無能傳者，余之所聞於流傳者，惟開巖玉柱二曲耳。歲戊寅，南湖趙直長戚丈，船遊此湖，因過宿弊廬，問余曰，‘君知此十二曲乎？’余懼然只以右二曲對之。答曰，‘吾少時盡歌之，今已老矣，亦半失之。’因歌此六曲及三梧亭一曲，余敬受而書之。其後，外弟鄭憲世，亦傳一曲，雖未知命題之處，而觀其指意，必是十二中之一也，並錄於六曲之下。而三呈巖一曲，聞諸人，訶語恐有誤處，其餘四曲，未由知之，然其終不有能傳者無，今不可必也，故其下空其數紙以俟後日，或有所得也。南湖姓趙名炫，是吾曾祖考姨之子，是時年七十有六也。因竊惟曾考，以文章德行，名於世，且愛此江山甚酷，不惟此歌曲也，必有形諸文字詩句者多，而全失之無傳焉。嗚呼悲夫！”，『개호잡록』 상.

이 김추임이 편찬한 원본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 몇 가지 사실을 통해 김추임이 편찬한 것은 『개호잡영』이며, 현전 『개호잡록』은 이를 바탕으로 후손이 손질을 가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제 후손 중 과연 누가 김추임의 뒤를 이어 『개호잡록』을 다시 엮은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이와 관련 김추임의 고손(高孫)인 김국채(金國采, 1688~1751)가 주목된다.

개호주인(開湖主人) 김 상사(上舍) 익장(翊章)이 임신년(1752년) 3월 개암 선생 묘 아래 남쪽 기슭에 합장되었다. …(중략)… 을묘년(1735년)에 비로소 진사가 되었으나 과거를 그만둔 까닭에 서책을 보고 시를 읊조리며 술을 마시는 데 회포를 붙이고 스스로 즐거워하였다. 집이 개호 위에 있었는데 날마다 어조(魚鳥)와 더불어 서로 짝하여 스스로 깨달아 구함이 없는 즐거움이 있었다. 드디어 호수(湖叟)로 호를 삼았다. 강변 너머 또한 자천대(自天臺)가 있어 형승으로 일컬어지니 친구와 놀러온 자들이 많아 배를 타고 위아래로 노니는데 공은 반드시 술을 지니고 다니면서 뱃머리에서 서로 맞이 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 풍치를 높게 여겼다. 무진년(1688년)에 나서 신미년(1751년)에 죽으니 향년 64세이다.¹¹⁾

상일(相一)은 고향 후생으로 성심으로 양모하여 매번 개암 아래를 지나면 상상하며 느낌이 일었다. 하루는 공의 7대손인 국채(國采)가 나에게 말하기를 “선조의 행장이 아직도 붓을 닿지 않았으니 원컨대 한 본을 찬하여 후인의 참고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상일은 외람되게도 감당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상사(上舍 : 김국채를 가리킴)가 갑자기 고인이 되어 유명을 달리하는 사이에 이름에 차마 끝내 등질 수가 없어 삼가 비문 및 연보 서차에 의지하여 그 대강을 이루었으니 나는 아마도 참역의 죄가 있을 따름이다.¹²⁾

11) “開湖主人金上舍翊章，以壬申三月，祔葬于開巖先生墓下南麓。…(중략)… 乙卯始登上庠，因廢舉，寄懷於看書史詠詩飲酒，以自娛。家在開湖上，日與魚鳥相伴，有自得無求之樂。遂以湖叟爲號。越邊，又有自天臺，以形勝稱，親舊來遊者多，乘舟上下，公必攜酒相迎於船頭，人皆高其風致。生戊辰歿辛未，享年六十四。” 權相一，〈湖叟公墓碣銘 并序〉，『聞韶世稿』十(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첫 번째 글은 권상일(權相一, 1679~1759)이 쓴 김국채의 묘갈명이다. 이에 따르면 김국채는 48세라는 늦은 나이에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과거를 준비하여 출사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개호에 은거하여 강호지락(江湖之樂)을 누리는 길을 택하고 있다. 두 번째 글은 역시 권상일이 쓴 김우평의 행장이다. 이 글은 1758년에 쓴 것으로 이 때는 김국채가 죽은 지 7년이 지난 시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애초에 김국채가 권상일에게 김우평의 행장을 부탁했다는 사실이다.

위의 글에는 김국채가 『개호잡록』을 편찬했다는 직접적 언급은 없다. 그러나 권상일에게 김우평의 행장을 부탁했다는 사실과, ‘개호의 늙은이’라는 뜻을 지닌 호수(湖叟)를 호로 삼고 강호지락을 추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개호주인으로 통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현전 『개호잡록』은 김추임이 편찬한 원본을 바탕으로 김추임의 고손이자 김우평의 7대손인 김국채가 손질을 가한 것으로 판단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개암십이곡>의 성격

<개암십이곡>의 성격을 본격적으로 살피기에 앞서 창작 연대 및 창작 동기부터 우선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김우평은 <개암십이곡>을 언제, 무슨 이유로 짓게 되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상주 이거(移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 “相一以鄉後生，誠心仰慕，每過開巖下，想像興感。一日，公之七代孫國采，謂余曰，‘先祖行狀，尙未有屬筆，願撰一本，以備後人之參攷。’相一猥不敢當，因循未果，而上舍奄作古人幽明之間，不忍終負，謹依碑文及年譜序次，其梗槩，竊恐有僭易之罪爾。” 권상一，〈有明朝鮮國通政大夫行弘文館副提學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開巖先生金公行狀〉，『開巖先生文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김우평은 중종 19년 갑신년(1524년) 성주(星州) 사월곡(沙月谷)에서 태어났다.¹³⁾ 19세(1542년)에 찰방(察訪) 홍윤취(洪胤崔)의 딸-우암(寓庵) 홍언충(洪彦忠, 1473~1508)의 외손-과 혼인하였고, 29세(1552년)에 식년 진사시에 1등으로 합격하였다. 이듬해에 부친이 삼척부사로 가게 되자 부친을 따라갔는데 이후 삼척에서 생활한 것인지, 아니면 성주로 돌아온 것인지 불명확하다. 37세(1560년) 9월에 부친상을 당하였고, 39세(1562년) 11월 복을 마치자 상주 개암 근처에 별서(別墅)를 열었다. <행장>에 따르면 “이(개암에 별서를 연 것 : 필자 주)에 앞서 공은 성주로부터 상주 동문 밖으로 집을 옮겼다.”¹⁴⁾고 기록되어 있어 이 무렵 성주에서 상주로 이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상주로 이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곳이 그의 처향이었기 때문이다.¹⁵⁾ 42세(1565년)에 경상도 유생을 대표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보우(普雨, 1509~1565)의 주살을 상소하였다. 이듬해 10월 별시 문과에 3등으로 합격하여 예문관 검열이 되었다. 한편 문과 급제 후 약 20년간 여러 벼슬을 두루 거치며 벼슬살이를 지속하던 그는 62세인 을유년(1585년)에 벼슬을 그만두고 개암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후 64세(1587년) 가을 광주목사로 나갔다가 66세(1589년) 봄에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돌아왔다. 이듬해 정월 11일 개암 별서에서 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그의 생애에서 <개암십이곡>의 창작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562년~1566년, 1585년~1587년, 1589년~1590년 등 세 시기다. 이 중 첫 번째 시기에 창작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개호잡영 구절 병서>에서 “만년에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 쉬면서, 각건(角巾)을 쓰고 소오하며 산에 오르고 물에 임하여 물고기나 새와 더불어 짧은 노가 서로 따름에, 흥을 만나면 말로 뜻을 펴서 길

13) 皇明世宗嘉靖三年, 中宗大王十九年, 甲申十月四日乙未戌時, 先生生于星州沙月谷里第. <開巖先生年譜>, 『開巖先生文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이하 생애 관련 서술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책에 의거한 것이다.

14) “先是, 公自星州移家於州城東門外.” 權相一, <有明朝鮮國通政大夫行弘文館副提學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開巖先生金公行狀>, 위의 책.

15) “鸞鳳之緣, 來尙州, 開別墅, 於洛江開巖之上.” 李垞, <墓碣銘 並序>, 위의 책.

게 노래하여 <개암십이곡(開巖十二曲)>이 있게 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두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개암십이곡>을 창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두 번째 시기에 창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십삼 년 을유년(1585년) 선생 62세에 임기가 만료되자 개암 옛집으로 돌아왔다. 이로부터 자연에 노닐며 다시는 당세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¹⁶⁾고 한 연보의 기록 때문이다. 1583년 동인 계열의 박근원, 송응개, 허봉 등이 율곡 이이를 탄핵하다 오히려 유배된 사건-계미삼찬(癸未三巔)-이 있었는데, 이 때 김우평도 같은 당으로 지목되어 홍문관 부제학으로 있다가 청송부사로 좌천되었다. 이후 1585년 영의정 노수신의 상소로 유배 간 사람들이 모두 풀려났는데, 이 때 김우평은 청송부사직을 그만두고 환향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로부터 자연에 노닐며 다시는 당세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한 언급이다. 이로 미루어 동서분당이 격화되는 와중에서 더 이상의 환로를 포기하고 그 동안 꿈꾸던 강호지락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의 강호 은거 시점을, 광주목사를 그만둔 1589년으로 보기보다는 1585년으로 잡는 것이 옳을 듯하고, 이에 따라 <개암십이곡>의 창작도 이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개암십이곡> 중 <귀래(歸來)>라는 제목의 작품¹⁷⁾에서 ‘二十年’ 운운한 것은 1585년~1587년 사이에 창작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우평은 왜 <개암십이곡>을 창작하게 된 것일까?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김우평이 성주에서 상주로 이거한 사실을 주목할 때 ‘내성사족(來姓士族)의 터잡기-또는 뿌리내리기’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김우평의 생애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사실은 1565년 8월 경상도 유생을 대표하여

16) “十三年乙酉, 先生六十二歲, 秩滿還開巖舊墅. 自是, 優游泉石, 無復當世念矣.” <開巖先生年譜>, 앞의 책.

17) “二十年 役役 紅塵汚도 싱거거든 쇠여쇠툃 / 이리 도호 江山을 누를 쥘고 가 있던 고 / 이제야 오나니 白鷗을 버들 삼고 終老하랴 호노라.”

보우의 주살을 상소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그를 비롯한 경상도 유생들은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상소하였다.¹⁸⁾ <개암선생연보>에는 이 22번의 상소 중 5번의 상소가 그의 손에서 작성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⁹⁾ 이와 같은 사실은 다수의 유생들이 참여한 당시의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특히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상주로 이거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김우평은 이듬해 문과에 급제하여 약 20년간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당상관에까지 오름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퇴임 후 강호지락을 추구함으로써 이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만년에 개암에 은거하여 <개암십이곡>을 창작한 것은 상주의 유력 사족 가문으로 자리 잡기 위한 그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의 것과 연결되는 것으로 퇴계학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김우평은 원래 남명의 문인이었다. 그가 남명 조식(曹植, 1501~1572)의 문하에 든 것은 그의 부친 김희삼(金希參, 1507~1560)이 남명의 문인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상주 이거 전까지 남명의 문하에 드나든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고, 1566년 5월 남명의 문인들이 남계서원 사액을 계기로 서로 모여 서계에서 수창하였는데 여기에 김우평도 참여한 것으로 보아²⁰⁾ 상주 이거 이후에도 여전히 남명의 문하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상주 이거를 전후한 시기에 남명과 퇴계에 대해 그가 취한 입장을 잘 엿볼 수 있는 글이다.

18)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서울시스템주식회사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2001) 참조.

19) “一月疏二十二上, 而其中五疏出先生手.” <開巖先生年譜>, 앞의 책. 그가 작성한 五疏는 一·二·四·六·十九疏로 모두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20) “五月, 與弟沙溪公東岡公, 約虛從庵裸子將, 鄭梅村復顯遂初, 姜松庵翼仲輔, 曹梅庵湜幼清, 鄭竹軒仲尹, 會話于藍溪書院, 仍遊西溪, 溪在咸安郡西, 有唱酬諸篇.” <開巖先生年譜>, 앞의 책.

황 금계(黃錦溪 : 황준량)가 퇴계(退溪)에게 상서하여, 남명(南冥)이 의리에 통달하지 못한 점이 어디에 있느냐고 논하자, 퇴계는 답하기를 “이 사람들은 흔히 노장(老莊)에 병들어 우리 유학에 대해서는 으레 깊지 못하는데, 어찌 그 통달하지 못함을 괴이히 여기겠는가? 오는 그 장점만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부제학 개암(開岩) 김우굉(金宇宏)이 이 서한을 얻어 보고 크게 놀라서 마침내 퇴계에게 글을 올려 말하기를 “남명 선생은 우도(右道)에서, 선생은 좌도에서, 해와 달 같은 존재로 다 사문(斯文)을 흥기시키는 것을 자기 소임으로 삼고 계시니, 선비의 기습이 일변하여 도(道)에 이를 수 있음이 마치 하(河)에서 물마시고 배를 채우는 것과 같아, 비록 경경(硜硜)한 소인일지라도 말이 미덥고 행실이 과감합니다. 조 선생으로 말하면 더욱이 아래서부터 배워 올라가는 것을 주로 삼아서, 항상 말씀하기를 ‘학(學)이라 하면 아버지를 섬기고 형을 따르는 데 벗어나지 않는다. 만약 이를 힘쓰지 않는다면 바로 인사 상(人事上)에서 천리(天理)를 구하지 않는 것이니 끝내 소득이 없을 것이다.’ 하여 한 마디 말도 허무(虛無)에 가까운 점이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기를 ‘노장이 병이 되어 학문이 깊지 못하다.’ 하시니, 문하의 소자(小子)는 망령되어 생각하기를, 학문이란 인륜(人倫)의 일용행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마음을 보존하여 살피고 또 살피서 그 일에 익숙한 뒤라야 실지 소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여쭙노니 우리의 학문이 이 밖에 어디 있사옵니까? 지금 선생께서 거리낌 없이 저척(詆斥)하시어, 심지어 이단(異端)에 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시니, 아마도 선생의 크신 도량에 손상될 듯합니다. 원컨대 개유를 주시어 심한 의혹을 풀어주소서.” 하자, 퇴계는 답하기를 “나는 모(某)를 너무도 양모하는 처지인데 어찌 감히 기탄없이 비난할 이치가 있겠는가? 다만 입에 넘치는 예찬을 잘 못하는 까닭으로 하유(下惟)의 평(評)과 미순(未醇)의 논이 있게 된 것이다.” 하였다.²¹⁾

〈개암선생연보〉에 따르면 43세(1566년)에 퇴계 이 선생에게 편지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에 대한 주석에서 그의 글은 잃어버렸고 답서(答書)만 있다고 하면서 여러 편의 답서를 실어 놓았는데, 그 중 위 인용문의 마지막에 나온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있다.²²⁾ 따라서 『성호사설』의 위 기

21) 이익, 〈퇴계·남명〉, 국역 『성호사설』 IV(민족문화추진회, 1984), 120~121쪽.

록도 이 무렵의 상황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위의 글에서 김우평은 퇴계가 남명을 비난한 것에 대해 항의성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김우평이 퇴계의 문하에 든 것은 1566년 문과 급제 이후로 생각된다. 벼슬길에 나아간 그는 자연스럽게 퇴계의 문인들을 두루 접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구나 1567년~1569년은 국왕의 초빙을 받아 퇴계가 환로에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퇴계를 직접 종유(從遊)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퇴계 선생에게 올린 글 세 편이 문집에 실려 있는데, 이것들이 1569년(1편)~1570년(2편)에 쓰인 것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퇴계 사후 오히려 퇴계학의 적극적인 계승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벼슬길에 있을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퇴계의 문인들과 더불어 동인의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만년에 은거해서는 강호지락을 추구하며 <개암십이곡>을 창작함으로써 퇴계의 <도산십이곡>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산십이곡>을 잇는 <개암십이곡>의 작품 성격은 어떤 것일까? 이미 선행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암십이곡>은 전편이 아닌 8곡만 전하고 있다.²³⁾ 게다가 현전 8곡 중 일부 작품의 경우 가사가 부정확한 상태로 전하고 있으며,²⁴⁾ 노래의 순서도 원곡과 많은 차이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개구암(開口巖) : 이른바 개호(開湖)위에 있는 바위다. 바위의 형상은 이미 7곡 중에 갖추어져 있는 까닭에 지금은 거듭 풀이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²⁵⁾

옥주봉(玉柱峯) : 구암(龜岩) 서쪽에 있다. 돌 봉우리가 높이 서있는데

22) “又載退溪答書略曰，吾於曹某慕用之深，安敢肆然詆斥，但不能溢口稱譽，故有下惟之評未醇之論耳云云。” <開巖先生年譜>, 앞의 책.

23) 조해숙, 『전승과 향유를 통해 본 <開巖十二曲>의 성격과 의미』, 앞의 책.

24) “而三呈巖一曲，聞諸人，詞語恐有誤處.” 『개호잡록』 상.

25) “開口巖：所謂開湖上岩，岩之狀已俱於七曲中，故今不必重釋之.” 『개호잡록』 하.

희미하게 옥을 인 위에 노송(老松)이 몇 그루 있다. 그 나머지는 12곡 중에 다 있다.²⁶⁾

위의 두 기록은 <개호잡록 하>에서 개호의 승경을 설명하는 부분에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개구암’을 설명하면서 “바위의 형상은 이미 7곡 중에 갖추어져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현전 <개암십이곡> 중 ‘개구암’은 첫 번째 곡이다. 또한 ‘옥주봉’은 12곡이라 했는데, 현전 <개암십이곡>에는 두 번째 곡으로 기록되어 있다. 부전하는 4곡을 감안하더라도 모두 순서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전승 과정의 문제로 부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현재의 <개암십이곡>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그것의 성격을 온전히 논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한 상태에서 지금부터 작품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開口巖 在亭之北

문노라 버리바회야 엇지호여 버런는다
萬頃 蒼波水를 다 마시랴 버런는다
우리도 人間繚覆 몬내 우셔 버런노라.

玉柱峯 在亭之西

鰲臺邊 玉柱峯을 언니 年에 갖가 센고
亭亭 矗矗호여 壁立萬仞 호엿소나
만일 天柱웃 것거지면 네 바질가 호노라.

龜巖 在亭之西

突巖은 諺傳이오 鰲臺는 뉘 지은고
나는 널오더 龜巖이라 호노니
洛龜 呈瑞호니 네 권가 호노라.

26) “玉柱峯：在龜岩西。石峯峻立微戴玉上，有老松數株，其餘，具于十二曲中。” 위의 책.

釣磯 在亭之北

遠山에 비 거든 後 前江이 술진 저기
一片 苔磯에 낫디을 빗기 들고
몰래라 富春山 釣臺 이러턴동 마던동.

虛舟 指亭前虛舟而言也

野渡 一片舟는 몇 사롬 것네노라
가는 닻 오는 닻 월 적 업시 단니다가
빈 비에 明月을 싣고 절노 汎汎호느니.

歸來 指歸亭而言也

二十年 役役 紅塵汚도 생각거든 식여식듯
이리 釣臺 江山을 누를 쥬고 가 잇던고
이제야 오나니 白鷗을 버들 삼고 終老호라 호노라.

訪友

江村에 비 썩린 날 벗 보라 가라 호고
술 걸너 병의 너코 芒鞋로 내거르니 이슬 거워 옷 젖는다
舟子야 비 가져 오느라 썰리 썰리 가자.

三呈巖 在亭之西

白沙中 업드려 잇는 저 바회야
엇지호 거시완디 나면 凶年 들면 豐年고
두어라 나 잇는 전에란 드렀다 엇더호리.²⁷⁾

모든 작품에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창작 당시부터 붙인 것인지, 아니면 김추임이 노래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붙인 것인지 알 수 없다. 제목 아래에-위의 인용에서는 옆에-작은 글씨로 제목인 자연물의 위치를 설명해 두었다. 이 설명은 김추임이 붙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정자를 기준으로 방위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때의 정자는 '모정(慕亭)'을 가리킨

27) 『개호잡록』 상.

다. <개호잡록 하>에 실려 있는 ‘모정’에 대한 설명을 보기로 하자.

산의 한 기슭이 달려 호수 가운데 드니 나의 증조가 일찍이 이곳에 모정(茅亭)을 열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지금도 촌민들이 모정이라 일컫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 내가 이에 선조의 남긴 뜻을 사모하여 장차 정우(亭宇)를 세우고자 하는 까닭에 ‘茅’를 고쳐 ‘慕’로 하였으니 먼저 이름을 알지 못하여 내가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과연 이 뜻을 따르는 것이 나의 자손들에게 환을 남기는 것은 아닐지? 28)

김우평이 정자를 열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하였고, 그 뜻을 이어 김추임이 정자를 세우고 선조의 남긴 뜻을 사모한다는 의미에서 ‘모정’이라 이름 지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김추임이 정자를 세운 뒤 이 정자를 기준으로 방위를 표시하는 설명을 덧붙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듯하다.

<도산십이곡>을 잇는 ‘육가형시조’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작품의 구체적 내용은 <도산십이곡>과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우선 <도산십이곡>은 ‘언지(言志)’와 ‘언학(言學)’을 합쳐 십이곡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 이 작품은 ‘언학(言學)’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빠져 있고 ‘언지(言志)’에 해당하는 내용만 나타나 있다. 또한 퇴계가 이별의 <육가>를 비판하면서 내세웠던 온유돈후(溫柔敦厚)의 미학과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제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개구암>은 말 그대로 입을 벌리고 있는 바위다.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이 “마치 큰고래가 바다를 들이마시는 듯하다” 29)고도 하고, “대장부가 크게 입을 벌리고 웃는 듯하다” 30)고도 한다. <연보>의 기록은 종장의 내용을 연상시키고, <개호잡영>의 기록은 종장의 내용을 연상시킨다. 따라서

28) “山之一麓走入湖中，斗斷千大崔爲爽快。吾曾祖嘗於此處，欲開茅亭，未果而去世。至今村氓，稱道茅亭不已。余乃，慕先祖之遺意，將起亭宇，故改茅爲慕，而先名之又未知，及吾之未承，而果遂此志，不遺恨於吾子孫否?” 『개호잡록』 하.

29) “巖在尙州治之東洛江上，向江開口，若長鯨吸海者.” <개암선생연보>, 앞의 책.

30) “又取其中巖狀如大丈夫大開口笑者，自號開巖.” <개호잡영 구절 병서>, 앞의 책.

두 기록 모두 <개암십이곡>의 전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개구암’의 형상을 취하여 노래한 것이 이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핵심은 종장에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 종장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인간번복이 못내 우스워 (입을) 벌리고 있다’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입을 벌린 채) 인간번복을 못내 웃어 버렸다’로 볼 수도 있다.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은 있지만 초·중장의 서술어가 “버런느다(벌렸느냐)”로 끝나는 것으로 미루어 종장의 “버런노라”도 ‘(입을) 벌렸노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전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은 동서분당 이후 동인과 서인이 치열한 정권 다툼을 벌였던 당대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옥주봉>에서 “언니 年에 갖가 센고”라는 초장의 표현은 누가 인위적으로 깎아 세운 것처럼 기막힌 자연을 연출하고 있다는 말이다. 중장에서는 우뚝 솟은 봉우리와 깎아지른 절벽들이 쪽 길게 늘어선 것에 대해 감탄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감탄의 종착역은 중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기둥이 꺾어지면 대신 바치겠다는 것이다.

<구암>은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 내력을 노래한 것이다. 초장과 중장을 통해 원래는 돌암 또는 오대로 불리던 것을 자신이 구암이라 부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다음 기록을 잠시 보도록 하자.

구등암(九登巖) : 이른바 구암(龜岩)이다. 속명(俗名)은 구돌암(求突岩)인데 그 음이 서로 가까운 것을 취해 이름으로 삼았다.³¹⁾

작품에서는 “突巖은 諺傳이오”라고 했는데, 위의 기록에서는 속명이 구돌암이라 하였다. 아무튼 돌암, 구돌암, 또는 오대라 불리던 것을 김우평은 구암으로 고쳐 명명하였다. 그것은 “바위의 형상이 거북과 흡사하고 강 가운데 었드려서 큰물이 아니면 항상 등을 드러내고 있었기”³²⁾ 때문이다.

31) “九登巖：所謂龜岩也。俗名求突岩，取其音相近而爲名.” 『개호잡록』 하.

32) “龜巖：巖狀酷似龜，而伏于江中非大水，則常露背.” 위의 책.

김우평은 이를 종장에서 낙강의 거북이 상서로움을 드러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기〉는 녹태기(綠苔磯)를 가리킨다. 다시 녹태기에 대한 설명을 보도록 하자.

녹태기(綠苔磯) : 능파대(凌波臺) 아래 있다. 벼랑을 없애지 않아서 아래는 반드시 배를 타야 한다. 위에는 수십 인이 앉을 수 있는데 낚시줄을 드리우고 물고기와 놀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날이 저문다.³³⁾

비가 개고 물이 적당히 불어난 때 낚시대를 비스듬히 들고 녹태기를 향한다. 낚시줄을 드리우고 물고기와 놀다 보면 어느 새 날이 저문다. 그러니 엄자릉의 부춘산 조대가 이렇든지 말든지 내 알 바가 아니다.

〈허주〉는 말 그대로 정자 앞 빈 배를 노래한 것이다. 『개호잡록』 하권에 보면 회진(檜津)이라는 나루가 있는데, 이곳에서 있는 배를 노래한 것으로 보인다. 화자의 눈에 포착된 것은 종일토록 쉼 없이 다니다가 밤이 되어 명월을 신고 절로 떠있는 빈 배다.

〈귀래〉는 제목 그대로 귀거래를 노래한 것이다. 20년간의 환로 생활이 이제는 시들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강산을 두고 벼슬길에 몸담았던 자신을 후회하는 심정이 나타나 있다. 드디어 종장에서는 자연을 벗 삼아 생애를 마치겠다고 다짐한다. 1585년 청송부사직을 그만두고 환향하면서 “이로부터 자연에 노닐며 다시는 당세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³⁴⁾고 한 언급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방우〉는 “그 후 외제 정헌세(鄭憲世)가 또한 한 곡을 전하였는데, 비록 제목을 명한 곳은 모르겠으나 그 가리키는 뜻을 보건대 필시 십이 중의 하나이기에 아울러 육곡의 아래에 기록하였다.”³⁵⁾고 한 작품이다. 이 기

33) “綠苔磯：在凌波臺下，非掃崖而下則必乘舟，而上可坐數十人，垂綸玩魚，不覺日暮。”
위의 책.

34) 앞의 주 16) 참조.

35) 앞의 주 10) 참조.

록으로 보아 〈방우〉라는 제목은 이 작품의 소재가 된 자연물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작품의 내용을 참조하여 김추임이 명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개호잡록』 하권에서 개호 주변의 승경을 설명한 기록 중에 환선대(喚船臺)라는 것이 있어 주목된다.

환선대(喚船臺) : 북쪽 나무 위에 있다. 강을 건너고자 하는 자는 이 대에 올라 뱃사공을 부른다.³⁶⁾

“舟子야 비 가져 오느라”라고 뱃사공을 부르는 종장의 표현으로 보아 이 작품은 환선대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작품은 벼를 찾아가는 화자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 술병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내거르니”³⁷⁾, “썰리 썰리 가져” 등의 표현을 통해 조금이라도 빨리 벼를 만나 즐겁게 노닐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잘 읽을 수 있다. 벼를 찾아가는 심정을 실감나게 표현하려다 보니 종장의 길이가 2음보나 늘어났다.

〈삼정암〉은 초장에 1음보가 부족하다. “〈삼정암(三呈巖)〉 한 곡은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것인데 가사의 말에 아마도 잘못된 곳이 있는 듯하다.”³⁸⁾는 『개호잡록』 상권의 기록은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이해된다. 이 작품은 민간에 전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한 것이다. 다시 『개호잡록』 하권의 관련 기록을 보도록 하자.

삼정암(三呈巖) : 백사(白沙) 중에 얽드려 있다. 속전(俗傳)에 이 바위가 숨으면 풍년이 들고 드러나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삼정은 속명(俗名)이니 이로 인한 것이다.³⁹⁾

36) “喚船臺：在北津上。欲渡江者，登此臺，招舟子。” 『개호잡록』 하.

37) 내걸다 : 앞을 향하여 힘차게 걷다.

38) 앞의 주 10) 참조.

39) “三呈巖：伏于沙中。俗傳，此岩隱則年豐，露則年凶。三呈俗名也，因之。” 『개호잡록』 하.

이 기록과 작품을 견주어보면 초장과 중장은 위 기록을 작품으로 옮긴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화자의 소망을 담은 것이 중장의 내용이다.

이상 〈개암십이곡〉 중 현전 8곡에 대해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개호 주변의 대표적 승경을 소재로 삼아 그 속에서 노니는 화자의 즐거움이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적 정서가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4. 〈개암십이곡〉의 시가사적 위상

-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개호잡록』과 거기 수록된 〈개암십이곡〉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전 『개호잡록』은 김우평의 증손인 김추임이 편찬한 원본을 바탕으로 김우평의 7대손이자 김추임의 고손인 김국채가 손질을 가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암십이곡〉은 1585년~1587년 사이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작품의 주요 내용은 개호 주변의 승경에서 노니는 화자의 즐거움을 노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시가사적 위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형식적으로 '육가형 시조'의 확장형인 십이곡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작가인 김우평이 만년에 퇴계의 문하에 드나든 점을 고려할 때 약 20년 전에 창작된 〈도산십이곡〉과의 관련 하에서 이를 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도산십이곡〉은 이별 〈장육당육가〉의 현실부정 의식을 운유돈후의 미학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아울러 전육곡(언지)과 후육곡(언학)을 합쳐 십이곡을 완성함으로써 '육가형 시조'의 확장형인 십이곡 형태를 새롭게 창출하였다. 따라서 〈도산십이곡〉 이후의 '육가형 시조'를 논하는 경우 이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그

위상을 파악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개암십이곡〉은 겉으로 보아 ‘육가형 시조’의 확장형인 십이곡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산십이곡〉을 충실히 계승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김우평이 성주에서 상주로 이거한 내성사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주의 유력 사족 가문으로 자리 잡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일 뿐, 실질에 있어서는 〈도산십이곡〉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개암십이곡〉은 겉으로만 십이곡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 ‘언지’와 ‘언학’을 아우르는 〈도산십이곡〉의 성격을 온전히 계승하지 못했다. 즉 〈개암십이곡〉에는 ‘언학’에 해당하는 내용은 빠져 있고 ‘언지’에 해당하는 내용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퇴계가 〈도산십이곡〉에서 구축한 온유돈후의 미학을 계승했다고 볼 수도 없다.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나 〈개암십이곡〉에서는 현실비판 의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암십이곡〉은 〈도산십이곡〉을 충실히 계승하는 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개암십이곡〉은 실패한 문학인가, 아니면 그 나름의 의의를 가진 것인가? 이와 관련 후자의 입장에서 〈개암십이곡〉을 규정하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대의 대학자였던 퇴계에게는 〈도산십이곡〉을 통해 강호에 은거하는 유학자의 자세와 학문에 임하는 초학자의 자세를 정리하는 것이 요청적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퇴계에게 부여된 몫이었을 뿐 모든 이에게 전범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도산십이곡〉 이후 ‘육가형 시조’의 향방은 각자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육가형 시조’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도산십이곡〉을 의방한 후대의 작품을, 〈도산십이곡〉의 아류로 규정하거나 실패한 문학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들 문학에 대한 정당한 가치 부여라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도산십이곡〉을 의방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처지에 입각해 〈도산십이곡〉과 어떤 차이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따지고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암십이곡〉은 〈도산십이곡〉을 계승한 첫 작품으로서 〈도산십이곡〉의 두 문제 중 ‘언지’에 초점을 맞추어 내성사족의 터잡기-또는 뿌리내리기를 시

도함으로써 <도산십이곡> 이후 '육가형 시조'의 향방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품이라 하겠다.

■ 참고문헌

- 『開巖先生文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開湖雜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권순희, 「〈단가삼결〉의 창작 맥락과 시적 지향」, 『한국시가연구』 제8집, 한국시학회, 2000.
金鎮東 編, 『聞韶世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이상원, 「'육가' 시형의 연원과 '육가형 시조'의 성립」, 『어문논집』 52, 민족어문학회, 2005.
이익, 〈퇴계·남명〉, 『국역 성호사설』 IV, 민족문화추진회, 1984, 120~121쪽.
조해숙, 「義城 金門의 時調 落穂 11首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9집, 서울대 국문과, 1994.
조해숙, 「전승과 향유를 통해 본 <開巖十二曲>의 성격과 의미」, 『국어국문학』 133, 국어국문학회, 2003.
최재남, 「士林의 생활문화로서의 詩歌活動」, 한국고전문학회 편, 『국문학과 문화』, 월인, 2001.
『追慕錄』, 松川書院 소장.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서울시스템주식회사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2001.

<투고일 : 2006. 12. 23. 심사일 : 2007. 1. 29. 심사완료일 : 2007. 2.9.>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of and the Characteristics
of 〈*Gaeam-sibigok*(개암십이곡)〉
in the History of Poetry

Lee, Sang-won

〈*Gaeam-sibigok*(개암십이곡)〉 is a work of Kim, U-goeng(김우평) in the late of 16 C and included in a copy, *Gaehojamrok*(개호잡록). *Gaehojamrok*(개호잡록) was revised in the early of 18 C based on the edition by Kim, Chu-im(김추임) in the middle of 17 C.

The written year of 〈*Gaeam-sibigok*(개암십이곡)〉 is assumed between 1585-1587 and the period was Kim, U-goeng's later years. The motive of 〈*Gaeam-sibigok*(개암십이곡)〉 is understood in two ways. First, the relation with 'the settlement of *Naesungsajok*(내성사족)' can be one of reasons, while Kim, U-goeng's move from Seongju to Sangju was remembered. Second, the other could be the succession of Toe Gye School(퇴계학), when it was regarded that 〈*Gaeam-sibigok*(개암십이곡)〉 succeeded to the pattern of 〈*Dosan-sibigok*(도산십이곡)〉.

What is paid attention to is that 〈*Gaeam-sibigok*(개암십이곡)〉 is 'Yukga style *sijo*(육가형 시조)', as the succession of 〈*Dosan-sibigok*(도산십이곡)〉. However, although both *Eonji* and *Eonhak* appeared in 〈*Dosan-sibigok*(도산십이곡)〉, 〈*Gaeam-sibigok*(개암십이곡)〉 was organized only with *Eonji*. It was a starting point regarding the

direction of 'Yukga style sijo(육가형 시조)' after <Dosan-sibigok(도산십이곡)>.

Key word : Dosan-sibigok, Gaeam-sibigok, Gaehojamrok, Kim, U-goeng, Kim, Chu-im, Yukga style sijo